

주말마다 신나는 우리민속공연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안국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5분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1번 이용
- **버스** 광화문 세종로 일대 버스정류장(도보로 15분)
- P **주차** 경복궁 주차장 이용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110-820)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Samcheongro 37, Jongno-gu, Seoul 110-820, Korea
전화 02-3704-3114 **홈페이지** www.nfm.go.kr



이용안내

개관 및 관람 시간

- 03~05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 06~08월 09:00~18:30 17:30까지 입장
- 09~10월 09:00~18:00 17:00까지 입장
- 11~02월 09:00~17:00 16:00까지 입장
- 05~08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18:00까지 입장
- 야간개장 매달 마지막 수요일 09:00~21:00, 20:00까지 입장

휴관일 매주 화요일 입장료 무료

※ 공연접수 공고는 4~5월과 9~10월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속 한미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06 JUNE 2014

토요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June

2014년 6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국립민속박물관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6월 토요일상설공연

Saturday Performances in June, Every Saturday 3:00pm, Museum Auditorium

2014년 6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우리민속 한마당

함께 누리는 문화 행복한 대한민국
Korean Folk Performance
for Visitors

7월 공연 일정 미리보기
토요일상설공연

일자	공연제목	공연자	장르
5일	전예주 판소리와 남도민요	전예주 판소리 연구소	성악
12일	통소 류	한국통소연구회	기악
19일	가야금과 하프의 봄을 여는 소리	이정자	기악
26일	시민과 함께하는 국악 한마당	정옥향	성악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일자	공연제목	공연자	장르
30일	Beat the Art the 뱅뱅	이찬행, 파주농악	타악



제847회
한국춤 동인회 '풍류전'
'Pungryujeon' by Korean Dance Society

06. 07.



제848회
하유선의 춤
'선무(先舞)하니 후락(後樂)하더라'
'Seonmu hani Hurak hadeora (Joy Comes After Dance)' Dance by Ha Yuseon

06. 14.



제849회
재담과 민요가 있는 여름날
'성하유회'
A Summer Day with Jokes and Folksongs 'Seonghayuhui'

06. 21.



제850회
내려놓은 놈이 놀다! 놈·놈·놈
Playing with Mindfulness: Nom, Nom, Nom

06. 28.

※ 공연일자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above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 공연료는 무료입니다. Free Admission

우리민속 06 JUNE 2014

한미당



한국춤 동인회 '풍류전'

'Pungryujeon' by Korean Dance Society

2014. 6. 07.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한국춤 동인회가 '고금(古今)을 아우르는 한국 춤 콘텐츠'를 선보이는 무대로써 한국 문화에 역사적 기반을 두고 전승되어온 전통 춤사위를 공연한다.

춤의 유형들을 수용하여 전통문화의 가치와 보존에 대한 의식 제고,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예술적 시각을 확대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여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본 공연을 준비하였다.

춘앵무, 교방살풀이춤(임이조류), 태평무, 서용석류 피리산조, 교방장고춤, 소고춤, 설장구, 반고춤으로 진행될 오늘의 공연은 다양한 춤들을 통해 움직임의 소리, 몸짓의 언어, 빛의 색채와 공간이 살아 움직이는 공연자들의 아름답고 역동적인 춤사위로 흥과 멋이 살아 숨 쉬는 뜻 깊은 공연이 될 것이다.

Contents of Korean dances encompassing old and new will be staged by Korean Dance Society. In this stage, traditional dance numbers that have been transmitted with their historical roots in Korean culture will be displayed.

Throughout the show, dancers convey the importance of traditional culture and its preservation: the correlations between modern and historical values through diverse dance pieces so that the audience could be able to both broaden their perspectives and raise awareness o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Chunaengmu, Yim Yijo-style Gyobang Salpurichum, Taepyeongmu, Seo Yongseok-style Piri Sanjo, Gyobang Janggochum, Sogochum, Seoljanggu and Bangochum will be staged one after another. This will be a performance in which the audience might fully appreciate the sounds of movements, the language of gestures and the color of lights that are presented by beautiful yet dynamic dance moves.

공연순서 PROGRAM

- 01 춘앵전 Chunaengjeon
- 02 교방입춤 Gyobang Ipchum
- 03 태평무 Taepyeongmu
- 04 서용석류 피리산조 Seo Yongseok-style Piri Sanjo
- 05 교방장고춤 Gyobang Janggochum
- 06 소고춤 Sogochum
- 07 설장구 Seoljanggu
- 08 반고춤 Bangochum



대표 박진미(진주교육대학교 외래강사)

총감독 송미숙

출연 강외숙, 김성민, 변영화, 홍채섭, 황경선, 박수지, 한보라, 배순열, 윤보라, 이재섭, 김명원, 김민지, 문진수, 이정진, 박진미, 권지혜, 신동욱, 이정원, 노성덕, 김윤경, 신소을, 정이수

하유선의 춤 '선무(先舞)하니 후락(後樂)하더라'

'Seonmu hani Hurak hadeora (Joy Comes After Dance)' Dance by Ha Yuseon

2014. 6. 14.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하유선의 '선무(先舞)하니 후락(後樂)하더라'는 선무후락(先舞後樂)의 주제를 담은 공연이다. 전통춤이 가지는 정통성과 악기를 들고 춤으로 연희되는 민속춤과의 만남을 통해 흥겨운 춤을 통한 화합의 무대를 선보인다.

전통춤의 백미인 살풀이춤을 시작으로 흥과 여운의 진도북춤과 춤의 기본인 부채입춤이 이어지고, 예인의 자태를 보여주는 소고춤에 진쇠장단에 어우러지는 발짓을 통해 우아함을 표현하는 태평무와 전라지역의 춤의 정수인 호남산조무를 공연한다. 마지막 공연은 생음악 반주에 한바탕 신명나게 놀아 볼 설장구춤을 통해 정통성을 이어온 예인들의 무대를 만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객들과 공연자가 하나 되는 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다.

Ha Yuseon presents traditional Korean dances under the theme of "Seonmuhurak (literally, joy comes after dance)". In this stage, the authenticity of traditional dances encounters the merriment of folk dances accompanying musical instruments in a way that creates harmony.

Salpurichum, the highlight of Korean traditional dance lifts the curtain. What follows is Jindo Bukchum, a drum dance in Jindo province of which dancers holding sticks with both hands present rhythmic steps. Buchae Ipchum, a kind of fan dance considered to be the basic of Korean dances and Sogochum with the characteristics of graceful and beautiful figure will be followed. In Taepyeongmu, dancers express elegance with delicate footsteps accompanied by shamanic rhythm named Jinsoejangdan. Later, a solo dance piece Honamsanjomu, a quintessence of dances in Jeolla province will be presented. Seoljangguchum with live music accompaniment will finalize the whole program. The audience might be able to enjoy this last stage together with the performers beyond the boundaries between them.

공연순서 PROGRAM

- 01 살풀이 Salpuri
- 02 진도북춤 Jindo Bukchum
- 03 부채입춤 Buchae Ipchum
- 04 소고춤 Sogochum
- 05 태평무 Taepyeongmu
- 06 호남산조춤 Honam Sanjochum
- 07 설장구춤 Seoljangguchum



대표 하유선(하유선무용단 대표)
출연 하유선, 문근성, 이현숙, 김기엽, 최용준, 오지영, 김혜미, 홍민주, 이슬기

재담과 민요가 있는 여름날 '성하유희'

A Summer Day with Jokes and Folksongs 'Seonghayuhui'

2014. 6. 21.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과거 서도입창의 소리꾼 집단인 날탕패, 재인, 기생 등 전통예인집단의 대표적인 음악뿐 아니라 강원도, 함경도 등 백두대간에 삶의 터를 다지며 살아가던 서민들의 애환이 들어있는 아라리, 타령 등 다채로운 노래를 선보인다. 특히 우리 국악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상징적 음악 공간인 경복궁을 중심으로 예인집단에 의해 성장되고 서민대중에 의해 활성화되었던 민속음악을 두루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이 선보인다. 이번 무대에서 연주되는 상당수의 곡은 비교적 최근까지 전승이 단절되었다가 각고의 노력 끝에 복원되어 세상에 다시 나온 것으로, 재담, 모노극, 선소리, 잡가, 민요 등 '경복궁'을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던 조상들의 여름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한 레퍼토리라고 할 수 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부족하지 않은 형식미, 적당한 절제미와 풍성한 음악성이 신명과 어우러져 흥겨운 무대가 될 것이다.

In this stage, representative music played by a group of traditional entertainers such as Naltangpae, a band sings Seodo Ipchang (a traditional musical genre known as 'stand-up song' sung in Pyeongan and Hwanghae provinces), acrobatics and courtesans in the past, along with various songs like Arari and Taryeong sung by ordinary people who lived on Baekdu Daegan mountain range in Kangwon and Hamgyeong provinces will be presented. Throughout the show, the performers introduce various musical pieces so that the audience appreciate traditional music that were frequently played by the professionals and vitalized by the public in and around Gyeongbokgung palace, a symbolic space in Korean music history. Many songs listed in the repertoire of this program were disconnected in its chain of transmission and have recently been restored. The performance, therefore, will give a rare opportunity for the audience to experience the entertainment including, jokes, mono acting performances, sensori(stand-up song), japga(miscellaneous song) and minyo(folk song) enjoyed by the ancestors who placed Gyeongbokgung Palace at the center of their lives. Conventional beauty, adequate moderation and rich musical elements mingled with merriment will make a delightful stage.

공연순서 PROGRAM

- 01 장안명가가 남긴 교태, 방물가 The coquette played by a famed courtesan: Bangmulga
- 02 날탕패의 패기, 의주산타령, 청천강수 The vigor of Naltangpae troupe: Euijusantaryeong, Cheongcheongangsu
- 03 백두대간에 맺힌 설움, 아라리 The sorrow of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rari
- 04 함흥차 가는 소리, 어랑타령, 애원성 The sound of train heading Hamheung: Eorangtaryeong, Aewonseong
- 05 봉산재인집단의 유산, 재담, 모노극 The legacy of Bongsan Jaein group: Jokes and Mono acting performance
- 06 남문을 열고 바루를 치다, 경기민요 Opening the southern gate and hitting balu: Gyeonggi Minyo



대표 조유순(경제서도잡가보존회 회장)
출연 조유순, 최동욱, 주현정, 라명순, 원영신, 장지우, 조명희, 신여신, 채경숙, 양승순, 김성임, 이채은, 지정이, 조성호, 홍승순, 남옥단, 신명자, 김예주, 최정택

내려놓은 놈이 놀다! 놈 · 놈 · 놈

Playing with Mindfulness: Nom · Nom · Nom

2014. 6. 28. Saturday(토) 3:00pm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Museum Auditorium



공연내용 Performance Description

이번 공연은 고르예술단에서 한국의 타악과 풍물 및 춤 퍼포먼스를 모두 선보인다. 첫 무대는 하늘 기운의 표상인 운(雲)·우(雨)·풍(風)·뢰(雷)가 대지를 뒤덮고 산아를 메아리 치는 듯한 하늘의 울림을 여러 대의 대북(太鼓)과 모듬북으로 표현한 태고의 울림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풍물판굿 중 장구재비가 놀이판 가운데서 혼자 나와 장구를 치며 가락과 춤을 뽐내는 설장구춤, 하늘과 땅을 잇는 전령사로 새의 형상을 여성적인 단아함과 경쾌한 몸짓으로 표현한 비천무, 분출하는 용암의 심장부, 그 꺼지지 않는 샘(泉)처럼 복소리와 동작이 역동적인 용천의 소리, 풍물굿에서 사용하는 소고를 치며 춤사위를 곁들인 소고춤을 공연한다. 마지막 공연은 가면을 소재로 한 퍼포먼스와 창작 북을 이용하여 남성 북의 웅장함과 여성 북의 경쾌함이 섬세하게 녹아 표현된 타악퍼포먼스 樂&Rock으로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Goreu Art Troupe presents Korean percussion music, Pungmul (Korean folk music tradition) and dance performances all together.

A percussion ensemble piece entitled 'Resonance of Large Bass Drums' begins the show. In this song, performers describe the roaring sounds from the sky generated by clouds, rain, wind and thunder by playing several large bass drums along with drums with different sizes. What follows is a drum solo performance, Seoljiangguchum of which a janggujaebi (hourglass-shaped drum player) dances while beating a drum strapped over his body. In Bicheonmu, dancers depict flying celestial apsaras that are known as messengers connecting heaven and earth with graceful yet light, cheerful steps. Later, a song titled 'Sound of Spring Water' represents water gushing from the spring with powerful drumming and dynamic movements: and a small framed drum dance, Sogochum will be staged. In the finale, 'Rak(Joy) & Rock' a combination of performance using masks and male-female drum duo will close the entire program.

공연순서 PROGRAM

- 01 태고의울림 Resonance of Large Bass Drums
- 02 설장고춤 Seoljiangguchum
- 03 비천무 Bicheonmu
- 04 용천의소리 Sound of Spring Water
- 05 소고춤 Sogochum
- 06 타악퍼포먼스 樂&Rock Percussion performance: Rak(Joy) & Rock



대표 문근성(고르예술단 단장)
출연 문근성, 이정훈, 신영태, 최용준, 김기엽, 김은지, 김지민, 이새미

